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3.12.6.(수) 조간	배포	2023.12.5.(화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	책임자	국 장	오상완	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장영심	(02-3145-8475)
	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	책임자	부 장	이근영	(02-3774-8730)
		담당자	팀 장	정상현	(02-3774-9840)
	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	책임자	부 장	전진수	(02-3774-9880)
		담당자	팀 장	고일규	(02-3774-9090)
	한국예탁결제원 주식·파생등록부	책임자	부 장	이형근	(02-3774-3040)
		담당자	팀 장	장명수	(02-3774-3275)
	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 기업법제팀	책임자	본부장	김 춘	(02-2087-7008)
		담당자	팀 장	강택신	(02-2087-7150)
	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 법제팀	책임자	그룹장	진성훈	(02-368-4553)
		담당자	팀 장	김 구	(02-368-4570)

내년부터,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.

- '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'
('23.1.31. 금융위, 법무부 공동 발표) 관련 안내 -

< 주요 내용 >

- 배당절차 개선방안('23.1.31.)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으며,
 - 동 상장회사들은 '先 배당액 확정, 後 배당기준일 지정'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음
-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,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,
 -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
- 한편, 투자자들은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총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'분리'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,
 - 배당절차 관련 일정 및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, 한국상장회사협의회·코스닥협회에서 12.11.(월)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

1

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상장회사의 준비 현황

- **(개선방안 개요)** '23.1.31. 금융위·법무부 등은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*을 마련·발표하였음
- * 금융위·법무부 등 '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' 보도자료 참고
-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, 기업이 결산배당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 -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
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



- **(준비현황)** 12월 결산 상장회사(유가·코스닥) 2,267개사 중 636개사(28.1%)가 정관 정비를 완료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,
- 동 상장회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 한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

12월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정비* 현황

(단위: 개사, %)

유가			코스닥			합계		
전체	정관정비	비율	전체	정관정비	비율	전체	정관정비	비율
780	185	23.7	1,487	451	30.3	2,267	636	28.1

* ① '23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'정관변경' 안건을 상정한 회사 및
 ② 기존 정관을 활용하여 배당절차 개선이 가능한 회사를 합산한 수치

2

투자자 유의사항

-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으나,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므로,
 -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①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, ②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
- 이와 관련하여,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하여,
 -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, 배당결정일, 배당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('23.12.11. 예정)
 - 또한,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,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(kind.krx.co.kr)에 바로가기 링크가 생성되며('23.12.월중)
 - 한국상장회사협의회·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, 한국거래소·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강화할 계획

3

당부사항 및 향후 계획

- **(당부사항)**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하여,
 -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'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 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라며,
 -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* 등을 통해 '先 배당액 확정, 後 배당기준일 지정'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

* 예 : '24년 정기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'정관변경'(☞[참고2]) 안건을 상정

- 또한,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인센티브*를 부여할 예정

* '23년 중 배당절차 개선을 완료한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부여

-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님을 선제적으로 공시하여 배당투자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

*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등 3개 시장의 공통서식으로 배당기준일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공시예시를 마련하여 상장회사에 제공할 예정

- **(향후 계획)**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, 한국예탁결제원, 한국상장회사협의회,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,

-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하여 안내할 예정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참고1

상법상 배당기준일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

※ 담당 : 법무부 상사법무과

□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할 수 있음

현행 상법상 ‘배당결정에 대한 권리’와 ‘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’를 분리할 수 있고,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으므로, 배당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총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음

- (i) 상법 제354조 제1항은 ‘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(배당결정)’와 ‘배당을 받을 자(배당금수령)’를 구별하고 있음
- (ii) 현재의 배당 실무관행도 적법하나, 현재 관행과 같이 ‘배당결정에 대한 권리’와 ‘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’를 동일 주주가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령상 제약이 없음
- (iii) 결국 ‘배당결정에 대한 권리’와 ‘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’를 분리할 수 있고, 각 권리의 행사에 대한 기준일도 분리할 수 있음
- (iv) 상법 제354조 제1항의 ‘배당을 받을 자로서의 권리’는 ‘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’를 의미함

⇒ 상법 제354조 제3항에 따른 ‘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’은 “배당금액과 배당을 받을 자가 정해지고 이를 수령할 수 있게 된 날”을 의미하므로, 배당기준일을 배당을 결의하는 주총일 이후로 지정하더라도 배당기준일로부터 ‘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’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함

- (결산배당)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,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

<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>

개 정 전	개 정 후
제45조(이익배당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	제45조(이익배당) ① (좌동) ② 이 회사는 <u>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</u> 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<u>2주 전에 이를 공고</u> 하여야 한다. ※ 회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,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(예컨대, '이 회사는 ○월 ○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의 배당을 한다.').

- (중간배당)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*,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

*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 결정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도록 **자본시장법 개정 예정** (현재는 배당기준일을 분기말로 확정)

<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내용 >

개 정 전	개 정 후
제45조의2(중간배당) ① 이 회사는 ○월 ○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,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.	제45조의2(중간배당) ① 이 회사는 <u>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</u>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※ 이사회에서 중간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음. ※ 중간배당기준일은 중간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시마다 정하지 않고,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(예컨대, '이 회사는 ○월 ○일 24시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제1항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.').

- **(유의사항)**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 필요

[참고] 정관 개정 시 정기보고서에 기재할 사항

-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'24년 1분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
 - **(정관에 관한 사항)**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, 변경이유 등 기재 (I. 회사의 개요 - 5. 정관에 관한 사항)
 - **(배당에 관한 사항)**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기재 (III. 재무에 관한 사항 - 6. 배당에 관한 사항)

1. 회사가 「배당절차 개선방안」을 이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정관 내용은?

- ☐ 금번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은
 -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정비해야 함
- ☐ 이를 위하여, 아래의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할 필요
 - ① **(사업년도 말일 ㄴ 배당기준일)**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므로,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함
 - ② **(의결권 기준일 ㄴ 배당기준일)**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였더라도,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함
 - ③ **(先배당액 확정 및 後배당기준일 설정)**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이후의 날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, 정관에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특정하여 함

2. 주식배당 회사의 경우, 결산배당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?

- 주식배당의 경우, 상법상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총 종결 시 그 신주의 주주*가 되므로 주식배당시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함

* 상법 제462조의2 제4항 : (취지) 주총 개최 중에 출석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변동하는 문제 등 방지

- 금전배당만 실시하는 경우, 본 개선방안에 따라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
-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
 -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전의 같은 날로 정할 수 있으나, 양 기준일이 반드시 같은 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배당 기준일과 별개로 금전배당 기준일은 주총 이후로 정하는 것도 상법상 허용됨
 - 다만, 그러한 경우 주식배당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도 금전배당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

3.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실무일정은?

□ 개선방안에 따른 배당절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

- ①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최근 개정('23.2.8.)된 '상장회사 표준정관'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배당절차 관련한 정관 내용을 정비하고,
- ② 해당 정관에 따라 '先 배당액확정, 後 배당기준일' 설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운영해야 함

□ 이에 상장회사는 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정기 및 중간배당절차와 배당기준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

- 해당 정관을 근거로 2024년 중 중간배당부터, 2025년 정기배당 순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
- 다만,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